

삼성화재, 車 보험도 '초격차' 실현 특약으로 경쟁률 높여 손해율 타개

1~8월 車보험 누적 손해율 81%
상반기 DB손보에 손익 1위 내줘
하이브리드 배터리 신가보상부터
고령자 비상제동차량 특약 출시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경쟁력 강화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손해율 상승과 차보험손익 감소 추세에 대응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선보이면서 초격차 실현을 가속하겠다는 포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다양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출시하고 있다. '업계 최초' 타이틀을 획득한 특약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업계 최초로 '실버(고령자) 비상제동장치장착차량 할인 특약'을 선보였다. 해당 특약은 고령 운전자(만 65세 이상) 가운데 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보험료를 평균 2.7% 할인한다.

지난달에는 업계 최초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을 신설했다. 업계에서 전기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운영 중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은 삼성화재가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구동용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시 새 부분품 가격과 감가상각비용 후 새 부분품 가격의 차액을 보상한다. 기존엔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체 보



삼성화재 사옥 전경.

/삼성화재

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고객은 감가상각분을 부담했으나 특약 가입 시 감가상각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8월에도 업계 최초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보장을 강화하는 특약 2종(대인배상I 지원금,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렌트비 지원)을 신설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강화 전략에 나선 이유로는 업계 1위 수성이 꼽힌다. 손해율 상승 및 차보험손익 감소의 전화위복을 위해 자동차보험 상품 경쟁력을 앞세워 궁극적으로 올해 목표 전략인 초격차 실현의 가속 패달을 밟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지난 1~8월 누적 손해율은 81.1%로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p) 악화했다. 삼성화재의 누적 손해율은 80.9%, 지난 달 손해율은 86.5%로 통상 손익분기점

인 80%를 넘어섰다.

또한 앞서 삼성화재는 올해 상반기 차보험손익에서 DB손해보험에 1위 자리를 내준 바 있다.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차보험손익은 전년 동기(2020억원) 대비 26.1% 감소한 1493억원으로 DB손해보험(1620억원)에 뒤진 업계 2위를 기록했다. 2분기만 봐도 차보험손익은 470억원으로 950억원이던 전년 대비 50.9% 감소해 반토막났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차보험 실적이 하락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체 손익 측면에서는 심각한 이슈까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초격차 실현에 나서면서 전체적인 손익 규모 자체는 작년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초격차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강남 신통 1호 '대치미도아파트' 임대 늘리고 요양시설 기부채납

초고령화 시대 복지수요 해소
저류시설 설치도 받아들여

강남신속통합기획 1호 단지인 '대치미도아파트'가 임대주택 수를 늘리고, 노인요양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계가 나가지 않으면 신통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당초 주민들이 주장했던 청년복지시설 대신 노인요양시설로 양보한데 이어 난색을 표했던 저류시설 설치까지 모두 받아들였다.

13일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대치미도는 최고 50층에 3800세대로 재건축된다. 이번 재공람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을 반영했다.

대치미도 1, 2차는 지난 1983년 강남구대치동 511번지에 21개동, 2436가구로 지어졌다.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붙어있고, 양재천이 바로 앞에 있는 입지다.

총 3800세대 가운데 공공임대가 623세대다. 당초 605세대에서 18세대가 늘었다. 기존에는 전평형이 전용 84㎡ 이상이었지만 재건축으로 중소형 평형이 생기게 됐다.

전용면적 별로는 ▲59㎡ 641세대(공공 226세대 포함) ▲74㎡ 362세대(공공 197세대 포함) ▲84㎡ 977세대(공공 200세대 포함) ▲115㎡ 336세대 ▲127㎡ 1008세대 ▲160㎡ 308세대 ▲190㎡ 168세대 등이다.

일반분양가는 3.3㎡당 약 7943만원으로 추정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에서 5%를 할인해 산정했다. 59㎡와 84㎡의 조합원 분양가가 각각 19억6800만원, 26억3100만원이다. 가장 대형 평형인 190㎡가 50억8100만원이다.

추정비례율이 101.1%로 기존 84㎡ 조합원이 같은 평형으로 이동하면 추가로 내야할 부담금은 1억5000만원 안팎이다.

기부채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키즈카페 및 키움센터와 노인요양시설이다. 각각 1050㎡, 5000㎡ 규모다. 주민들은 청년복지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노인요양시설을 고집했다.

공고에 따르면 "초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로 기부채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신통 1호인 여의도시범아파트 역시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기부채납 시설을 놓고 서울시와 조합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나서 "데이케어센터가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며 압박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단계별 기한마다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를 취소하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생보사, 보험금청구권 신탁 선점경쟁 돌입

삼성생명, 여성CEO와 1호 계약체결
미래에셋, 업계 첫 신탁업 경영 인가
교보생명, 관련팀 꾸려 조만간 진출

신탁 시장 선두를 향한 생명보험사의 경쟁이 시작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면서 생보사들이 발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등 일정조건을 갖춘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전까진 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의 청구권은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제도는 주로 퇴직연금이나 주식·채권과 같은 금전재산을 중심으로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을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으

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도입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타 업권 대비 생보업계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다른 재산신탁과 달리 장기상품인 보험의 특성이 주요한데 안정적·장기적 자산 운용 및 관리는 생보사의 전문 분야다. 보험 계약 관계자와 보험금 청구·지급 정보도 생보사가 실시간 제어할 수 있다.

생보사가 가운데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일반고객 대상 신탁업을 영위해 왔다. 지난 2007년 신탁업 개시 이후 일반 개인 고객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유층 고객의 투자·자산관리 상담지원도 해오고 있다.

또한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된 12일 신탁 상품을 출시해 여성CEO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삼성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은 회사의 안정성과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 역량이 중요하다"며 "삼성생명의 안정성은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며, 상속·증여, 투자, 세무 등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WM팀은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같은 날 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상품을 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한 생보사 5곳(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교보생명) 중 한 곳이다. 그동안 집중했던 퇴직연금 신탁과 함께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에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업 경영 인가를 받은 보험사"라며 "사망보험금 지급 이후에도 수익자 재정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보생명도 신탁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고 종합자산관리회사 전환을 준비해왔다. 최근엔 보험금청구권 신탁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신탁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신탁 시장 진출 준비를 해왔고 관련 팀도 꾸려졌다"며 "조만간 해당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케이뱅크, 사상 최대 누적 당기순익 달성

3분기 순익 370억, 누적 1224억
파킹·입출금통장 인기로 고객수 ↑

케이뱅크가 올해 3분기 1224억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케이뱅크는 3분기 37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누적 당기순이익이 122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기준으로는 1년전과 비교해 220.2% 증가한 수준이다.

케이뱅크가 사상 최대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수가 늘며 여수신 잔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3분기말 케이뱅크 고객수가 1205만명을 기록했다"며 "파킹통장과 입출금통장이 인기를 끌며 고객이 몰렸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3분기 수신잔액은 2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27% 늘었다.

지난 9월 케이뱅크는 파킹통장 '플러스스박스'의 기존한도 10억원을 폐지하고 고액예치(5000만원 초과) 잔액에 대해 연 3%의 금리를 적용했다. 고액예치 고객이 25% 늘며 수신금액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여신잔액은 16조2000억원으로 같은기간 26.4%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잔액은 각각 47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잔액 증가분의 70%가 대출갚아타기를



케이뱅크 사옥.

/케이뱅크

통해 유입됐다.

여수신을 통해 얻은 이자이익은 1074억원이다.

케이뱅크의 3분기 비이자이익은 120억원이다. 케이뱅크는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올 3분기 국내채권과 미국국채투자서비스를 출시하고, 가상자산·채권·금·공모주 등 여러 투자등을 한데모는 '투자탭'을 신설했다.

케이뱅크의 연체율은 0.88%로 세분기 연속 하락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4.42%로 이익성장, 안전자산 비중이 증가해 전분기보다 0.56% 올랐다. 순이자마진(NIM)은 2.07%다.

케이뱅크는 이날 건전성 제고를 바탕으로 상생금융 실천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